

교토시 라쿠사이 지쿠린 공원

교토시 라쿠사이 지쿠린 공원은 개발로 인해 감소한 시내의 대숲(일본어로 지쿠린)을 보호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나무의 다양성과 생태, 그리고 지역의 대나무 재배 역사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관, 대나무 제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숭, 전통적인 다실, 일본 재래종과 외래종을 합쳐 약 110 종류의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드넓은 산책형 정원, 레크리에이션 구역 등으로 구성된 광대한 복합 시설입니다.

대나무 자료관

설명이 적힌 패널과 사진 외에 대나무에 관한 식물학적인 정보와 대나무 재배 및 수확 기술, 건축·공예용 대나무 소재와 그 쓰임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엘바 에디슨(1847~1931년)이 교토의 대나무를 사용해 개발·생산한 대나무 필라멘트 전구의 복제품은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널에는 영어 번역문이 실려 있습니다.

교토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건축용·내장용 대나무가 벽을 따라 전시되어 있으며, 품종별로 다른 자연스러운 정취와 특정한 색·모양을 내도록 특별히 처리한 대나무, 목제 틀을 씌워 사각형으로 키운 대나무 등 다양한 대나무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들은 ‘교메이치쿠’라고 불리며 교토의 전통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는 외국의 대나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맞은편에는 작은 숭이 있는데, 젓가락과 컵받침, 차센(가루차를 끓일 때 저어서 거품이 일게 하는 도구), 바구니, 장난감, 미술품, 대나무로 만든 기념품 등 매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태원

생태원은 약 110 종류가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많은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 드넓은 정원입니다. 각 품종에는 일반적인 명칭(일본어와 로마자)과 학명, 일본어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고유종과 외래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대나무가 지형과 벌이 드는 곳, 그 외의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심어져 있습니다.

키가 큰 대나무에 둘러싸인 고요한 나무 그늘이 드리운 오솔길을 걷고 있으면, 자연과 일체가 되는 듯한 감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의 종류에 따라 대숲의 밀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집니다.

또한 교토 시내의 다른 대숲과 비교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에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대숲 속 오솔길은 꼬불꼬불해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숲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북동쪽의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봄에 열은 분홍색 꽃을 피우는 올벚나무가 있습니다. 푸르른 대나무에 둘러싸여 벚꽃이 흔들리는 모습은 대표적인 교토의 봄 풍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디밭에는 벤치가 놓여 있어 앉아서 공원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물

산책로를 따라 나아가면 수련이 떠 있는 연못에 걸린 도도바시 다리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현재의 교토시 가미교구에 있었던 목조 다리로서 교토의 대부분을 황폐화시켰던 오닌의 난(1467~1477년) 때는 격전지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돌다리로 다시 놓인 뒤, 공원 내의 현재 장소로 이축되었습니다.

정원 남동쪽 모퉁이에는 석조물이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1569년에 무로마치 막부의 마지막 쇼군이 된 아시카가 요시아키(1537~1597년)가 지은 구 니조성의 돌담에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원래는 묘비, 공양탑, 초석, 등롱 등 다양한 종류의 석조물입니다. 상태도 거의 손상이 보이지 않는 것부터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된 것 등 다양합니다.

어린이 광장

정원 남동쪽에는 대숲에 둘러싸인 레크리에이션 구역인 어린이 광장이 있습니다. 드넓은 잔디밭과 언덕에 만들어진 미끄럼틀 등이 있는 놀이터, 그리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연못 등이 있습니다. 슬로프나 노약자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장소도 충분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